

## 유령을 위한 레시피

나보령\*\*

그레이스 M. 조의 『전쟁 같은 맛』을 통해 본  
한국계 미국인의 한국전쟁 기억과 재현\*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의 한국전쟁 기억과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그레이스 M. 조의 『전쟁 같은 맛』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전쟁 기억은 비단 한국전쟁뿐 아니라, 이 책에서 엄마가 겪은 것으로 제시되는 진후 기지촌에서의 성노동, 국제결혼과 미국 이민, 조현병, 그리고 사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엄마의 유해가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분단 상황에 이르는 일련의 한국전쟁 후일담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쟁 같은 맛』에 이르는 작업들에서 나타나는 그레이스 조의 주된 문제의식 및 형식적 실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와 양식을 넘나드는 혼종적 회고록 쓰기를 통해 엄마의 유령적 속성을 가시화하고, 엄마를 유령으로 만든 권력에 대항하고자 했던 이 책의 글쓰기 형식상의 특성을 ‘유령 되기’의 재현 전략으로서 논했다.

다음으로, 엄마를 구조적 폭력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행위성을 발휘하는 주체로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새롭게 주목한 음식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지촌 디아스포라로서 엄마가 만든 음식 및 요리 행위로부터 동화와 반란의 양가적 수행성 및 민족주의 젠더 담론에 대한 패러디적 측면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재현의 시도와 성과의 다른 한편에서 이 책에서 그레이스 조가 직면하는 엄마의 한국전쟁 기억을 당사자를 대신해 말하는 곤경에 대해 논했다. 이때 주류의 위치에서 주류의 언어로써 소수자의 언어와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번역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간극 및 해석 불가능한 영역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작가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와 동시에 엄마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복원되지 못한 유령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실, 원본, 정통성 개념을 넘어서는 창조적 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초빙교수

현으로서 이 책에서 시도한 요리와 글쓰기의 의미를 재평가했다.

**주제어** 한국전쟁, 디아스포라, 한국계 미국인, 아메리시안, 기지촌, 조현병, 음식, 수프와 이데올로기

## 1. 한국전쟁을 ‘탈영토화’하기

최근 들어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문학이나 영상예술에서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재현의 장소로 삼지 않으면서도 과거를 재현하는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사건을 직접 체험한 이들이 흩어지거나, 기억을 잃거나, 죽는 등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감에 따라 기억과 재현에서 당사자성의 위상이 조정될 수밖에 없게 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그 이면으로부터는 좀 더 의식적인 변화 역시 읽어 낼 수 있다.

일례로, 양영희의 다큐멘터리 「수프와 이데올로기」(2022)를 살펴보자. 이 영화는 제주 4·3사건 당시 밀항해 반세기 이상을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갔던 엄마의 일본에서의 노년에 초점을 맞추어 4·3을 이야기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제주가 잠시 등장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엄마의 기억에서 흐려진 곳이자, 그로 인해 4·3 이후 처음 돌아온 고향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장소로 후경화될 따름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4·3에 관한 기억과 재현에서 제주도가 ‘영토화’(territorialization) — 들뢰즈와 가타리의 개념이면서, 문자 그대로 국민국가의 영토성을 강화한다는 의미 — 되어 온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즉, 한국인과 제주도민의 역사적 장소로서 제주도를 영토화해 온 4·3 기억과 재현이 4·3 체험에 관해 평생 함구한 채 살아갔던 재일조선인 여성, 그 후세대로서 4·3을 기억하고자 하는 재일조선인 감독처럼 제주라는 장소, 그리고 국민국가의 영토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의 목소리를 비가시화한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최근의 역사적 재현에서 감지되는 변화는 그와 같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전쟁에 관한 기억과 재현에서 한반도의 장소성은 남다른 위상을 차지해 왔다. 한반도야말로 냉전의 진실을 폭로하는 열전의 현장이자, 오늘날까지 지속하는 남과 북의 정전체제가 분단의 형태로 각인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장소성, 더 정확히는 삼팔선 이남에 한정된 영토화된 상상력이야말로 국경을 넘어서는 한국전쟁의 기억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단적으로, 미군과 결혼해 이민한 여성들이라든지, 해외입양아,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 등의 전쟁 이야기는 그동안 한국전쟁의 공적 기억에서 망각되어 왔다. 이들은 국경 내부에 있을 때조차 이곳에 소속되는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한국의 영토를 떠난 뒤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와 같은 국민국가의 영토적 상상력을 한번 탈피해 보자. 한국전쟁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확산될 수 있는지, 전쟁을 겪은 뒤 이 땅을 떠난 자들의 기억은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들의 기억은 한국전쟁에 대한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요컨대, 한국전쟁을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함으로써, 한국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기억과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청되는 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이 주목한 작품이 그레이스 M. 조의 『전쟁 같은 맛』(*Tastes Like War*)이다.<sup>1</sup> 이 책은 한국전쟁 생존자이자, 전후 기지촌의 성노동자였으며, 미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이자, 조현병자였던 엄마에 관해 딸의 시점에서 기술한 회고록이다. 작가인 그레이스 조는 1971년

1 Grace M. Cho (2021), *Tastes Like War: A Memoir*, New York: The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그레이스 조(2023), 주혜연 역, 『전쟁 같은 맛』, 파주: 글항아리. 인용 시 한국어 번역본을 참조하였고, 필요한 경우 원문의 표현과 면수를 괄호 안에 밝혔다.

부산 출생으로, 한국전쟁과 문학을 논할 때 참조되는 김윤식의 세대론에 따르면, 전쟁을 직접 겪은 적이 없는 ‘미체험 세대’<sup>2</sup>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Amerasian)이자, 한 살 반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디아스포라다.

작가와 책에서 다루는 대상 모두 지금껏 한국전쟁의 기억과 재현에서 ‘주류’를 접해 온 주체와는 거리가 멀다. 책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영어로 먼저 출판되었다. 그럼에도 그레이스 조는 책 안팎에서 자신들의 미국 이민을 비롯한 가족사가 “한국전쟁의 여파가 낳은 결과”<sup>3</sup>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단적으로, 「분단들」이라는 글에서 그는 기지촌 출신 여성과 그의 혼혈자녀로서 고국인 한국과 친족을 떠난 뒤 돌아올 수 없었던 엄마와 자신 역시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 초래한 또 하나의 이산가족이라고 정의한다.<sup>4</sup> 『전쟁 같은 맛』에서 다루는 엄마와 자신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 이주민의 가족 서사가 아닌, 한국전쟁의 역사와 기억과 연결 지으려 시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주목을 요한다. 하나는 미국의

2 김윤식은 한국전쟁 체험 여부를 기준으로, 작가들을 체험 세대(구세대/전후세대), 유년기 체험 세대, 미체험 세대로 분류하였다. 그중 미체험 세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언급만 되는 수준에 그쳤다. 1988년의 김윤식에게는 “미체험 세대에서 6·25의 문학적 인식을 문제 삼는 일은 문학사적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시기상조”였던 까닭이다. 김윤식(1988), 「6·25 전쟁 문학」,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p. 98. 오늘날 이들의 문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과제다. 또한 당시 김윤식이 미체험 세대로 언급한 작가군은 주로 1950년대 중후반 출생이지만, 이후로 한국전쟁을 체험한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안팎에서 직간접적으로 전쟁 기억을 전승받은 다양한 세대가 출현하였으므로 미체험 세대 안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세대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 안에서, 한국어로 쓰인, 주류 문학 장르 외에도, 국가, 민족, 언어, 장르 등의 경계를 넘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폭넓은 미체험 세대의 글쓰기를 포함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3 Grace M. Cho (2021), “Dear Imo: A Letter from the Korean Diaspora,” *Catapult*, June 23.

4 Grace M. Cho (2022), “Divisions,” *Amerasia Journal* 47(2),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p. 243.

맥락이다. 비엠타인 응우옌이 지적하였듯, 미국의 아시아 이주민 서사에서 전쟁 기억은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갖가지 전쟁—그중 많은 전쟁에 미국이 관여해 왔다—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 왔음에도, 그들이 가져오는 전쟁 이야기는 대부분이 들어주지도, 읽어 주지도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미국에서 전쟁이 언제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의 이야기로 상상되고 말해지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그것은 이들이야말로 미국이 관여한 초국적 전쟁의 결과이자 부산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외면과 다름없다.<sup>5</sup> 이들의 이야기가 한정된 재현의 자리를 허용받는 유일한 장소는 아메리칸드림의 서사다. 미국은 이들을 꿈꾸게 만든 존재이기 전에 고향과 고국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폭력과 상실의 기원임에도, 아메리칸드림 서사를 통해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전쟁 같은 맛』은 바로 그와 같은 미국 내 아시아 이주민 서사의 규범에 균열을 가하며, 한국전쟁의 기억을 전면화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엄마의 고통의 기원을 오로지 전쟁에만 돌리는 방식과도 거리를 둔다. 이는 캐시 박흥이 지적한, 아시아 이민자가 느끼는 고통의 원인을 미국과는 멀찍이 떨어진, 머나먼 고국 땅 내지 고립된 가족 내부로만 돌리는 아시아계 미국문학<sup>6</sup>의 암묵적인 관습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그레이스 조는 엄마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투병한 조현병과 그 끝에 다다른 죽음을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지속되었던 전쟁 트라우마, 인종과 젠더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 낳은 사회적 질병이자 죽음으로서 파고든다. 그럼으로써 주로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한국인의 미국 이민에 관한 지배적인 성공 서사를 부수는 데 도전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맥락이다. 상기한 미국의 영향뿐 아니라, 한국 내

5 Viet Thanh Nguyen (2015), "Our Vietnam War Never Ended," *The New York Times*, April 24.

6 캐시 박흥(2021),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p. 77.

부의 사정으로 인해서도 그동안 미국 이민 서사에서 한국전쟁의 그림자는 지워져 왔다. 그 배경에는 전후 미국에서 한국계 디아스포라 집단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했던 이들이 이른바 ‘전쟁신부’<sup>7</sup>들이었다는 사실이 있다. 이들은 미군 기지촌의 성노동자 출신이거나, 그 존재를 상기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 종속과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에 따라 그들의 혼혈 자녀와 함께 한국의 경계 바깥으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서사 바깥으로 추방되었다.

『전쟁 같은 맛』은 그와 같은 한국 및 미국의 한국계 디아스포라 사회 내부의 침묵과 은폐에 맞서, 전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과 긴밀하게 연동되었던 한국전쟁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이 억압된 존재들을 가시화하고자 시도한다.<sup>8</sup> 이 과정에서 그레이스 조는 한국전쟁을 비단 3년간에만 한정 짓지 않는다.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진 뒤에도 미군 기지촌과 전쟁신부, 혼혈아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엄마와 자신이야말로 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들의 삶의 궤적을 문서상의 정전과는 무관하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한국전쟁의 길고 넓은 여파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7 여지연은 ‘전쟁신부’(war bride)라는 용어가 여성을 전리품 취급하고, “대다수 한국 전쟁 신부들은 군사적 갈등이 중지되었던 휴전 시기 동안, 말하자면 전쟁 상태가 아니라 비교적 평화 시기 동안 병사였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용어라고 지적하며, ‘군인아내’(military bride)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여지연(2007), 임옥희 역,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pp. 18-19.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반대로 전쟁신부라는 용어가 여지연이 말한, 겉으로는 전쟁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지속되었던 한국 전쟁의 여파를 인식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이 용어를 전유하고자 한다. 실제로 『전쟁 같은 맛』에는 1987년의 시점에 엄마가 전쟁신부냐고 조롱하는 남학생에게 자신의 엄마는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에서 왔다고 되받아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작가는 당시 자신이 한국이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인다. 그레이스 조(2023), p. 67.

8 김현희 역시 미국 이민사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오랫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그늘에 존재했던 이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유래를 설명하는 작업이라고 언급하였다. 김현희(2021), 『이민 후 세대 코리아인 아메리칸의 역사 쓰기: 전쟁, 트라우마, 기억하기의 초국적 서사』, 정은주 편, 『글로벌 시대 재미한인 연구』, 교양: 학교방, p. 175.

그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의 ‘한국전쟁 기억’과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전쟁 같은 맛』에 대해 논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전쟁 기억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엄마가 직접 겪었던 전쟁뿐 아니라, 전후의 기지촌 생활, 국제결혼과 미국 이민, 조현병, 그리고 사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엄마의 유해가 드러내는 또 하나의 ‘분단’ 상황에 이르는 일련의 한국전쟁 후일담까지를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임을 밝힌다.

## 2. ‘유령 되기’로서의 혼종적 회고록

먼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인 엄마 하군자(1941~2008)의 한국전쟁 기억을 재현하기 위해 『전쟁 같은 맛』이 시도하는 글쓰기 형식 면에서의 실험에 대해 살펴보자.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엄마는 생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을뿐더러, 더 정확히는 온전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얽혀 있다.

첫 번째로, 엄마가 겪은 전쟁 트라우마다. 엄마는 한국전쟁 중에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고, 피란길에 가족들과 떨어져 아홉 살 어린 소녀의 몸으로 살아남은 일이 있다. 이 시절에 관해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집에서 홀로 김치를 먹으며 세 계절 동안을 버텼던 일, 극심한 허기 속에서 새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었던 일, 산에서 총을 든 북한군 소녀들을 보았을 때 체감한 공포 정도가 유일하다. 여느 전쟁 이야기에 비추어 덜 참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레이스 조는 오히려 그 점이야말로 엄마가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망각해 버렸을 전쟁 체험의 심연을 시사한다고 해석한다.

두 번째로, 엄마의 성적인 트라우마다. 엄마는 전후 부산의 해군 기지촌에서 성노동을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직접 말한 적이 없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다른 또 한 명의 혼혈아인 오빠를 낳게 된 사정, 그리고 미혼모로서 아버지뿐인 백인 선원과 만나 나를 낳은 뒤 이민한 사정에 대해 언제나 말을 아꼈다. 성폭력 사건으로 악명이 높았던 미국의 한 소년원에서 11년 동안 야간근무를 하며 보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함구하였다. 다만 비누 광고에 나오는 여성의 벗은 몸 이미지 같은, 일상적인 성적 뉘앙스조차 견디지 못했던 모습을 미루어 과거 엄마가 겪었을지 모를 강력한 성적 트라우마를 유추해 볼 따름이다.

세 번째로, 엄마가 40대 때부터 앓았던 조현병의 영향이다. 조현병이 발병하면서 엄마는 다른 사람의 말을 특수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외부와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곤 하였다. 그로 인해 엄마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어려워졌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에 내재해 있는 모국어로 말할 수 없던 엄마의 곤경이다. 엄마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할 만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가족 안에서도 영어를 썼다. 그러나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었으며, 엄마는 평생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전쟁 같은 맛』의 곳곳에는 엄마가 탄식처럼 내뱉곤 했던 경상도 방언의 한국어인 “아이구! 답답으라”(52)가 발음을 그대로 옮긴 형태(“Aigu! Dap-dapp-eu-rah”[27])로 표기되어 있다. 다른 누군가에게 차마 털어놓기 힘든 내용뿐 아니라, 이를 외국어인 영어로써 표현해야 했던 엄마의 곤경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엄마의 온갖 파편화된 말들, 깨진 영어, 그리고 비언어의 흔적들—책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빵 부스러기”(61)처럼 생애 전반에 걸쳐 엄마가 흩뿌려 놓은 정보들—을 그러모아 복원하고자 시도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엄마의 불완전한 언어와 침묵 너머를, 장영은이 지적하였듯, 학문적으로 돌파해 나간다. 엄마의 조현병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중학생 때부터 그는 정신질환에 관한 책을 읽고 엄마의 증상을



직접 밝혀냈으며, 대학원에 들어간 이래 줄곧 엄마를 주제로 삼아 연구하였다. 장영은은 이 작업을 “고통의 원인과 구조를 밝혀내고”, “어머니에게 가해진 부당한 사회적 낙인을 비판할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하는 공부로서의 미부여 하였다.<sup>9</sup>

중요한 지적으로, 장영은이 논한 트라우마의 기원을 탐구하고 언어화하는 문제로부터 더 나아가,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려 하는 측면은 엄마의 말할 수 없는 한국전쟁 기억과 트라우마를 직접 체험한 당사자가 아닌 후세대로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언어화할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그레이스 조의 학문적·예술적 실천이다. 이 문제는 『전쟁 같은 맛』의 글쓰기 형식 및 재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엄마를 비롯한 기지촌 출신의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트라우마, 낙인, 수치 등으로 인해 공적으로 담론화되지 못한,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양 취급되어 온 ‘유령’(ghost)에 해당한다. 그들의 트라우마 역시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뿐 아니라, 사후에 제대로 말해지지 못한 채 줄곧 억압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령적 속성을 띤다. 이들의 후속세대 사이에서는 마치 유령이 출몰(haunting)하는 것처럼 직접 보고 듣고 겪지 않았음에도, 이전 세대부터 이어지는 그 트라우마적 기억들이 무의식적·감각적으로 현상하게 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령이 된 존재들과 그들의 유령적 기억이 시공간을 넘어 여러 몸들에 편재한다는 것이 그레이스 조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니콜라스 아브라함(Nicoals Abraham)과 마리아 토록(Maria Torok), 마리안 허쉬(Marianne Hirsch) 등 그가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논의들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관점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9 장영은(2022), 「트라우마와 공부: 그레이스 조의 자기서사와 모녀서사」, 『여성문학연구』 57, 한국여성문학회, p. 127.

유령을 포착하기 위해 작가로서 그가 시도한 재현 전략 쪽이다. 대관절 보이지 않을뿐더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령(디아스포라의 기억과 트라우마)을 어떻게 가시화할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작업의 기저를 이루는 유령의 힘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듯, 담론화를 가로막고 유령이 되도록 만든 것은 트라우마의 효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령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능력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sup>10</sup> 그가 주목하는 것이 유령이 지닌 그 역설적 힘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힘이야말로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닌, 후속세대로서 그가 유령에 관해 쓸 수 있는 “창작의 원동력”<sup>11</sup>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와 예술이 손쉽게 치유의 담론으로 귀결되는 방식과 신중하게 거리를 둔다.

그와 같은 바탕 위에서 그는 유령적 기억과 존재들을 재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론을 탐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학문장과 예술장의 경계, 그리고 예술장 안에서도 다양한 장르 간의 경계를 활발하게 넘나드는 혼종성이다.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 그가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처음 발견했던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학과 대학원생으로서 학계에서였다.<sup>12</sup> 지도교수(Patricia Clough)의 영향도 중요했지만,<sup>13</sup> 기존의 제도화, 규율화된 연구방법론의 한계와 부딪치는 과정이 그를 그와 같은 탈경계적·혼종적 작업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 
- 10 Grace M. Cho (2006), “Diaspora of Camptown: The Forgotten War’s Monstrous Family,” *Women’s Studies Quarterly* 34(1&2), The Feminist Press, p. 310.
- 11 Grace M. Cho (2006), “Performing an Ethics of Entanglement in *Still Present Pasts: Korean Americans and the ‘Forgotten War’*,” *Women & Performance: A Journal of Feminist Theory* 16 (2), Taylor & Francis, p. 304.
- 12 Hiji Nam and Grace M. Cho (2018), “Yellow Fever,” *The New Inquiry*, March 14.
- 13 Hiji Nam and Grace M. Cho (2021), “Words Unspoken: Grace M. Cho on Anti-Asian Violence, Mental Health, and the Livingness of Trauma,” *Artforum*, May 25.

일례로, 「회귀분석: 엄마, 기억, 데이터」라는 글에서 그는 명확한 연구 질문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찾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무엇인지, 데이터를 0 또는 1로 코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독립변수 X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Y배 증가한다는 식의 방정식을 통해 도출된 회귀분석 그래프가 과연 엄마의 지난 삶의 궤적과 행위성을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사회학 연구의 기본 원칙들이 나열된 문장들 사이로, 마치 시처럼 행의 배열을 달리하여 끼어드는 이탤릭체의 질문들—“*엄마, 답하지 못한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엄마 절대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인가요?*”<sup>14</sup>—은 그러한 연구방법론이 결코 엄마를 제대로 구명할 수 없다는 회의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글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사회과학의 규율적 방법론으로 길들일 수 없는 곳”, “이성의 ‘폭력적인 빛’으로 비추어지지 않는”, “기억의 가장 어두운 공간”, “정신과 피부 사이의 어둠” 속에서 엄마에 대해 쓰겠노라 천명한다.<sup>15</sup>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레이스 조의 현재까지의 작업은 엄마의 죽음을 전후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초기에는 재현의 수단인 언어와 매체의 문제에 천착하는 형식적 실험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스토리텔링 기계의 중얼거림」에서는 한국에 있는 이모에게 엄마의 상태를 전하려 시도하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때 모어였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한국어와 영어의 간극,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둘러싼 언어 자체의 한계를 부각한다. 이 과정에서 일찍이 언어에 민감한 자의식을 갖고, 여러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 작가 테레사 학경 차의 『딕테』(1982)의 구절들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기도 했

14 Grace M. Cho (2005), “Regression Analysis: Mother, Memory, Data,” *Cultural Studies—Critical Methodologies* 5(1), Sage Publications, p. 45.

15 Grace M. Cho (2005), p. 50.

다.<sup>16</sup>

「허들의 꿈」의 경우 실제 상연되었던 퍼포먼스 텍스트로(2002년 12월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초연), 미국 유학생, 해외입양아, 기지촌의 성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목소리를 오가면서, 트라우마적 기억이 개별 주체를 넘어 여러 시공간 속의 디아스포라의 몸(체)들을 통해 전달되는 양상을 표현하였다.<sup>17</sup> 비슷하게 「귀향」(2006)에서는 엄마를 비롯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이야기의 단편들을 콜라주한 형태로 제시하였다.<sup>18</sup>

이외에도 공동 전시인 ‘어제 안에 오늘: 잊혀진 전쟁 살아있는 기억’(2005.1.29.~3.19.)에 참여해 김호수, 이현과 함께 「6·25: 우리 안에 흐르는 역사」라는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가 맡은 부분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1951년 최초의 한국인 전쟁신부인 이용순(Blue Morgan)이 미국에 도착하는 장면을 담은 기록 영상을 느리게 재생한 화면을 배경으로, 엄마와 관련된 일화들 사이로 다른 이들의 구술사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틈입하는 텍스트를 공연하는 형식이었다.<sup>19</sup>

상기한 작업들을 종합한 성과가 박사학위논문이자, 첫 책인 『한국계 디

- 
- 16 Grace M. Cho (2004), "Murmurs in the Story-Telling Machine,"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4(4), Sage Publications, pp. 426-432. 한 좌담에서 그는 첫 번째 책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2008)에 테레사 학경 차에 대한 명백한 오마주가 담겨 있으며, 자신이 『딕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Grace M. Cho (2021), Jennifer Kwon Dobbs, and Daniel Y. Kim, "A Forgotten Apocalypse," *Bookforum*, June 28.
- 17 Grace M. Cho, Hosu Kim (2005), "Dreaming in Tongues," *Qualitative Inquiry* 11(3), Sage Publications, pp. 445-457.
- 18 Grace M. Cho (2006), "Homecoming," *Feminist Studies* 32(2), Feminist Studies Inc., pp. 365-379.
- 19 Grace M. Cho (2006), "Performing an Ethics of Entanglement in *Still Present Pasts*," pp. 310-311. 참고로 해당 전시명, 작품명은 전시 사이트(www.stillpresentpasts.org)의 한국어 번역을 그대로 옮겼다. 이외에 본문에서 언급한 그레이스 조의 글들—『전쟁 같은 맛』 제외—의 한국어 제목 및 인용문은 모두 필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아스포라의 유령: 수치심, 비밀, 그리고 잊힌 전쟁』이다. 엄마와 같은 여성을 가리키는 ‘양공주’라는 존재가 한국계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유령의 형상으로 출몰하는 양상을 분석한 책이다. 여기서도 다양한 구술사와 아카이브 자료, 문학작품, 꿈과 무의식 등을 재료로 삼아서 논문, 픽션, 오토에스노그라피, 퍼포먼스 텍스트 등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가 시도되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엄마의 사후에 전기를 맞는다.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생애에 대한 회고록적 성격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전쟁 같은 맛』의 말미에 실린 ‘본문 재수록 출처에 밝혀져 있듯, 이 책은 2012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시기에 발표된 글들을 바탕으로 삼는데, 이 글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전개된 엄마의 삶을 회고록의 형식으로 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전쟁 같은 맛』은 그와 같은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을 일관하는 회고록 형식을 채택하되, 이것들을 취합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형식적 실험이 녹아 들어간 혼종적 회고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 책은 일반적인 회고록 장르와 달리, 시간의 선조적 흐름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을 깨고 여러 시공간을 오가는 파편화된 플롯을 취한다. 예컨대, 프롤로그와 서론 격인 1장을 지나 엄마의 생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 ‘아메리칸드림’의 경우, 세부적으로 5개의 세그먼트(1961년 한국, 1980년 워싱턴주 서헤일리스, 2006년 뉴저지주 프린스턴, 1977년 워싱턴주 서헤일리스, 1987년 워싱턴주 서헤일리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같은 시공간의 변화로부터는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흐름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각 세그먼트 내에서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 사이로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가 끼어든다. 엄마에 관한 일화를 서술하는 한편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나 미국 사회에 관한 역사학, 사회학, 정신의학 분야의 연구를 인용하는가 하면, 엄마의 말을 전하는 한편에서 엄마와 유사한 처지의 다른 여성들의 증언이라든지, 작가의 개인적 기록과 상상을 덧붙이는 식으로 말이다. 이때 이탤릭체로 된 글자체의 구분과 문장 끝에 달린 각주가 아니라면, 엄

마의 말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양식과 출처의 글을 이어 붙인 것 역시 특징이다. 그 결과 이 책은 작가 자신이 지적하였듯, “대부분의 회고록이 독자를 몰입시켜 내내 이야기 안에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서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전복하는”<sup>20</sup> 효과를 낸다.

일례로, 거식증에 걸린 엄마가 분유를 두고 “전쟁 같은 맛”이라고 진저리치며 일축하는 대목에서 작가는 자신의 몽상, 한국전쟁 사진 아카이브 속의 네이팜탄 피해자들의 이미지, 미군의 폭격으로 아이를 잃은 노근리 학살 생존자 여성, 미군의 식량 원조를 회고하는 여성의 증언을 흡사 영상의 오버랩 기법 같은 방식으로 넘나든다. 이 같은 방식은 한편으로는 엄마의 불완전한 기억과 목소리를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엄마를 흐릿하게 만들고, 엄마의 삶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회고록 쓰기 작업을 교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맛은 진절머리가 나.” 엄마는 말했다. “전쟁 같은 맛이야.”

엄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전쟁 얘기를 꺼낸 건 이번이 겨우 두 번째였다. 그 말을 듣자 연구 내용이 파편처럼 머릿속에 떠올랐고 나 역시 몽상에 빠져들었다. 죽은 엄마의 시신 옆, 흙길 바닥에 나앉아 있는 아기들. 네이팜탄에 화상을 입고 미라처럼 봉대를 감은 여자들의 모습. 미군기가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아이를 잃은 노근리 학살 생존자 여성의 말. 그날 미국의 두 얼굴을 봤어요.<sup>21</sup> 미국의 식량 원조를 회고하는 전쟁 신부의 말. ‘양키가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쌀이나 보리를 기다리던 차에, 떡을 게 넉넉히 올 거란 생각에 침을 흘렸죠……. 그랬는데 분유만

20 Sarah Shin and Grace M. Cho (2021), “In Conversation,” *Granta*, 28th September.

21 [원주] Charles J. Hanley, Choe Sang-Hun, and Martha Mendoza (2001), *The Bridge at No Gun Ri: A Hidden Nightmare from the Korean Wa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p. 127.

끝없이 쏟아졌고, 그걸 타서 마시는 사람마다 며칠씩 설사로 고생을 했어  
요. 22,23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령의 재현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레이스 조가 초기부터 시도해 온 일종의 ‘유령 되기’ 전략으로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여기서 작가는 엄마가 아닌, 전쟁을 직접 겪은 적이 없는 주체이자, 엄마의 삶에 대한 회고록을 쓰는 재현 주체로서의 위치를 부수고, 엄마는 물론 다양한 한국전쟁 생존자, 성노동자, 이민자, 유색인종 조현병자의 몸들에 편재하는 기억과 목소리와 얽혀 있는 유령적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한다. 이는 스스로를 재현 대상인 유령처럼 만드는 ‘되기’로, 로지 브라이도티의 말을 빌리자면, “지배적인 주체 위치(남성/백인/이성애자/표준어 사용자/재산 소유자/도시 거주자)의 긍정적 해체”이자, “자아와 타자 사이의 이전 경계를 지우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그의 초기 작업부터 『전쟁 같은 맛』에 이르는, 엄마의 말 사이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틈입시키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상, 꿈 등을 수시로 넘나드는 방식의 글쓰기는 그처럼 유령을 재현하기 위해 스스로 유령이 되는 서사적 실험과 대안적 재현으로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언급했듯,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유령이 되는 것은 트라우마의 효과다. 하지만 자발적인 유령 되기를 통해 유령의 기억,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유령적 속성을 가시화하는 작업은 트라우마를 만드는 권력을 폭로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지식 생산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전쟁 같은 맛』의 회고록 형식이 “트라우마의 효과

22 [원주] Chong Suk Dickman (2003), “Thank You,” in *I Remember Korea: Veterans Tell Their Stories of the Korean War, 1950-53* (ed. Linda Granfield), New York: Clarion Books, pp. 75-76.

23 그레이스 조(2023), pp. 39-40.

24 로지 브라이도티(2020),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pp. 228-229.

이자, 위반적 지식 생산 방식으로서 디아스포라 주체의 다양성(multiplicity)을 강조<sup>25</sup>하는 전작의 확장이라고 본 선행 유의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유령 되기로서의 혼종적 회고록 쓰기 작업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할 측면들은 없는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4장에서 이어서 논할 계획으로, 그전에 일단은 『전쟁 같은 맛』에서 그레이스 조가 선보인 재현 전략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 3. 기지촌 디아스포라의 음식에 깃든 양가적 수행성과 패러디

엄마의 사후에 전개된 그레이스 조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다. 물론 초기 작업에서도 음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그는 앞서 언급한 공동 전시작업 중 하나였던 유지영의 비디오 아트 「부대찌개」에 대해 비중 있게 설명하였다. 이때 한국전쟁기 미군에게 배급되었던 음식물의 쓰레기에 의존해서 생존해야 했던 한국인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하면서, 해당 전시의 목표이기도 했던 “자비로운 보호자”<sup>26</sup>라는 미국이 만들어 낸 지배적 서사를 부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좀 더 복잡해진다. 일례로, 「부대찌개 먹기」(2014)라는 글에서는 같은 부대찌개에 대해 말

25 Sunhay You (2022), “Tastes Like War by Grace M. Cho” (review),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5(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145.

26 Grace M. Cho (2006), “Performing an Ethics of Entanglement in *Still Present Pasts*,” p. 308.



하면서도,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이 글에서 그는 부대찌개를 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친박하고 졸렬한 요리로 여기는 미국의 한국계 예술가들을 통해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드러내는 악몽 같은 음식처럼 다가왔던 까닭에 격렬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훗날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이를 좀 더 겹겹의 의미가 쌓인 요리로서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즉,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상기시키면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상한 창조성을 대변하는 음식으로서 말이다.<sup>27</sup>

비슷하게 『전쟁 같은 맛』에서도 음식이 지닌 의미는 다층적으로 탐구되고 재해석된다. 엄마가 어떻게 병들게 되었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이 책은 엄마와 음식이 맺는 관계를 주의 깊게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이 논문이 주목하려는 측면은 엄마를 행위성을 발휘하는 주체로서 조명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새롭게 전면화하는 음식 및 요리하기 행위의 의미이다.

그에 따르면, 엄마에게 음식은 일차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말 그대로 살아남게 해 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힘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었던 중요한 수단에 해당한다. 언급했듯, 전쟁 시절 김치를 먹으며 생존했던 엄마는 음식의 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의 고향인 서헤일리스로 이주한 뒤 엄마는 엄청난 열성을 쏟아부어 숙달한 양식 요리와 베이킹 실력으로 매년 크고 작은 파티를 열어 시대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투쟁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엄마의 모습은 일면 미국 소도시 백인 중산층 가정의 아내, 주부로서의 규범적인 젠더 역할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엄마가 이곳에서 낯설고 혐오스러운 이방인 또는 오리엔탈리즘적

27 Grace M. Cho (2014), "Eating Military Base Stew," *Context* 13(3),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 38-39, p. 43.

으로 성애화된 존재, 아니면 그냥 보이지 않는 여자로 취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엄마의 행동은 단순히 서헤일리스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에 대한 그들의 “각본을 뒤집은” 수행적 효과를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음식은 것처럼 동화와 반란을 동시에 꾀하는 엄마의 “정치적 도구”였다.<sup>28</sup>

나아가, 엄마는 점차 부엌과 집 밖으로 나와 야생 블랙베리와 버섯 등의 먹거리를 채집하는 일을 하면서, 이전까지 이익을 얻기 위해 기대왔던 여성성과 성적 매력을 탈피해 나갔다. 소년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돌아 오자마자 곧장 숲으로 달려가던, 지칠 줄 모르는 활기를 뽐어냈던 엄마는 블랙베리 가공품을 만들어 팔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자신의 존재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경제력도 거머쥐게 되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엄마가 “충을 든 블랙베리 여사”(183)로 거듭났다고 회고한다.

물론 당시 엄마가 채집한 식재료들은 대형마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헐값에 판매되었다. 거시적인 시장의 구조 속에서 엄마의 노동이 창출한 가치는 저학력 유색인종 이주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착취한 대가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엄마 스스로도 요리를 가치 있는 노동으로 여기지 않았다. 딸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보였던 노골적인 실망과 분노에서 드러나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이 시절 엄마가 가정 안팎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엄마는 음식을 통해 주위의 적대적, 차별적인 이웃들에게 너그럽게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고,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엄마는 미국인 이웃뿐 아니라 한국에서 온 입양아나 이주여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역할도 자처했다. 엄마는 이들에게 김치 같은 한국 음식들을 만들어 주며 환영하였고(“함 목자”[165]; “Hammeokja”[102]), 음식으로

이들의 향수병을 달래 주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엄마의 미국식 요리가 미국 문화에 대한 동화나, 미국인 주부로서의 규범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순응으로부터 이탈하는 양가적 의미를 발생시켰듯, 엄마의 한국 음식, 그리고 그것을 요리하는 행위로부터도 한국의 민족주의와 한국적 주부, 어머니로서의 젠더 역할을 벗어나는 수행성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은 집단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한 까닭에 음식은 민족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결부되곤 한다. 이와 관련해 아니타 마누르는 음식과의 관계가 특정 주체의 위치를 주장할 수 있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정서적 시민권의 일종으로서 ‘음식 시민권’(culinary citizenship)<sup>29</sup>의 효력을 지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그와 같은 시민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여성에게 맡겨지는 ‘문화적 전통의 중개자’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다. 여성성과 연관되는 가정의 영역들은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디아스포라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고국의 전통 음식을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가족들이 본래의 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암묵적 임무가 주어진다 는 것이다.<sup>30</sup> 이때 이들이 만들고 소비하는 고국의 음식은 “명백하게 민족적으로 코드화된 음식”(18)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마누르의 논의에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은 고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노스텔지어나 향유가 반드시 민족성 또는 정해진 젠더 역할의 수행으로 수렴되지 않는,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비판적 실천의 의미를 띠는 사례를 분석한 대목이다. 인도-트리니다드계 이민자로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레즈비언 커플의 지극히 전통적인 인도식 디저트 취향이 빚어내는 갈등

29 Anita Mannur (2007), “Culinary Nostalgia: Authenticity, Nationalism, and Diaspora,” *Multi-Ethnic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MELUS)* 3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3.

30 Anita Mannur (2007), p. 17.

을 다룬 샨니 무투(Shani Mootoo)의 단편 「메인스트리트 나들이」(Out on Main Street)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드러나듯, 이른바 규범적 젠더, 섹슈얼리티의 경계 내부에 속하지 않는 소수자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그에 따르면, 이 소설 속의 레즈비언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인도의 전통 요리를 즐기고, 그 음식들에 대해 언제나 노스텔지어를 느끼지만, 이것이 국민국가 인도에 대한 노스텔지어나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규범적 코드를 벗어난 젠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이들은 자신들을 배제하는 ‘문화적 시민권’의 규제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계 디아스포라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메인스트리트로 나설 때마다 더욱 분명하게 체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들을 진정한 인도인에 미달하는 존재로 취급하고, 전통문화에 대해 한 수 가르치려 드는 디아스포라 집단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의치 않고 인도식 디저트를 즐기면서 수행하는 인디언성·인도인다움(Indianness)으로부터 마누르는 민족주의 젠더 담론을 패러디하고 조롱하는 효과를 읽어 냈다.<sup>31</sup>

마누르의 논의를 상세하게 인용한 까닭은, 『전쟁 같은 맛』에서 서술되는 엄마의 한국 음식에 대한 짙은 노스텔지어, 나아가 혼혈자녀나 동네의 입양아, 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던 행위로부터도, 무투의 소설 속 디아스포라 여성들과 유사한, 민족주의적 젠더 담론에 대한 패러디적 측면을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작가가 지적하였듯, 엄마나 입양아들에게 한국 음식은 떠나온 터전의 사람들과 장소들을 상기시키고, 그것들과 상상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정착과 동화만이 살길이고, 미국 가정과 미국이라는 국가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담론에 균열을 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음식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경계 바깥으로 내몰았던, 즉, 미국에 의한 보호와 구원 담론의 은밀한 공모자이기도 했던 고국의 존

— www.kci.go.kr

31 Anita Mannur (2007), pp. 22-24.

재 역시 상기시킨다. 그에 따라 이들에게 한국 음식은 한국인·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정서적 시민권의 소유 상태가 아닌, 정반대인 소속 없음의 감각, 시민권 박탈 상태를 환기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한국어에 서툰 혼혈 디아스포라인 그레이스 조가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한인 마트 주인의 배타적·위계적 태도 앞에서 느끼는 위축감에서 잘 나타나듯이 말이다.

더 나아가, 엄마의 한국 음식에는 또 다른 차원의 배제와 소외에서 발생하는 맥락이 내재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엄마가 먹고 싶어 했고, 즐겼던 것으로 회고되는 한국 음식의 성격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태찌개, 소고깃국, 고등어 조림, 생선전, 콩국수, 미숫가루, 콩나물.’ 이 음식들은 “우리 또래에 그런 요리 하는 사람이 어딴어!”(430)라는 한국인 유학생 친구의 말처럼 오늘날 한국 정부가 국가의 전통 요리로 브랜드화한 음식들과는 거리가 먼, 오래되고 소박한 서민적인 음식이다. 또한 여름철에 즐겨 먹는 콩국수라든지 소고깃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특별한 날이나 잔칫날에 먹는 요리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밥상에 일상적으로 오르곤 했던 평범한 가정식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를 미루어 엄마가 과거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먹었거나, 만들어 먹곤 했던 추억 속의 음식이었으리라 추정해 볼 직하다.

이때 고려할 점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 미국으로 이민하기 전까지 엄마의 삶이 평범하다고 말해지는 한국인의 일상과 상당히 달랐다는 사실이다.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엄마는 해방과 함께 부모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돌아온 이른바 귀환민 가족의 일원이었다. 당시 난민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귀환민의 처지와 식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방기에 발표된 여러 문학작품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엄마의 가족은 가장을 잃었다. 아버지는 죽고, 오빠는 실종된 전사와 전후에 남은 가족들이 겪었을 빈곤은 남성가장이 있는 가족들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심각했을 터이다. 일례로, 엄마의 언니

였던 춘자 이모는 1961년 20대의 나이에 위암으로 요절하였는데, 그레이스 조는 그것이 전쟁기의 궁핍한 식생활 탓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엄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중학교를 마친 뒤 부산으로 상경해 기지촌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해방기 귀환민, 한국전쟁 생존자, 그리고 전후의 미군 기지촌 출신으로서 한국에서 엄마의 밥상에 올랐던 음식들은, 이른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식이라고 말해지는 것들과 큰 차이가 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엄마는 실제로 생채찌개를 한 번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429). 한국에서 엄마가 계급적·젠더적으로 이 음식을 요리했던 가정주부의 신분과 거리가 멀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버지와 오빠가 있던 시절 외할머니가 그와 같은 주부 역할을 했을 터이지만, 그 시간은 엄마의 삶에서 지극히 짧았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은 엄마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즐겨 먹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매우 드물게 먹어 보았던, 오히려 갈망하고 선망했던 음식 쪽에 가까울지 모른다.

앞서 인용했던 「부대찌개 먹기」에서 그레이스 조는 자신이 부대찌개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유는 엄마가 차려 준 식탁에 그 요리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고, 엄마가 그에 대해 말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부대찌개가 과거 기지촌에서 일했던 엄마와 너무도 가까웠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식탁에서 밀려났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다.<sup>32</sup> 엄마와 너무 가까웠던 까닭에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지 모를 부대찌개와 정반대로, 엄마가 미국에서 새롭게 자신의 식탁에 올리고 싶어 했던 음식들은 사실 엄마와는 너무 멀었던 음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한국계 디아스포라 가정의 주부가 가족을 위해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

— [www.kci.go.kr](http://www.kci.go.kr)

32 Grace M. Cho (2014), p. 40.

를 엄마의 한국 음식으로부터 읽어 낼 수 있다. 엄마는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정상가족’의 주부라는 규범적 젠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여성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식 요리를 새롭게 몸에 익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제대로 먹거나 만들어 본 적 없었던 한국식 가정 요리들과 마침내 가까워지게 된 존재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지촌 출신 디아스포라 여성으로서 민족, 계급, 젠더 차원에서 여러 겹으로 작동하였던 배제 상황으로 인해 엄마는 ‘문화적 전통의 중개자’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할을 패러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엄마가 만든 한국 음식 역시 ‘민족적으로 코드화된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오랜 욕망과 원한, 그리고 소속되거나 향유한 적 없었던 대상에 대한 노스텔지어에 의해 탈코드화된 음식이 된다.

물론 저자가 지적하였듯, 엄마가 대단한 저항의 의도로 미국에서 김치를 담그고, 한국 음식을 만들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165). 하지만, 엄마의 한국 음식과 요리 행위에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음식사회학 수업 일화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의 음식, 그리고 마누르가 말한 민족주의적 젠더 규범의 수행으로서 요리 행위에 균열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전쟁 같은 맛』은 것처럼 민족과 국가의 틈새에서 기지촌 디아스포라로서 엄마와 혼혈자녀인 나,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된 고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의 의미에 새롭게 주목한다. 정서적 시민권이나 소속감 대신, 추방당하고 배제된 소수자들끼리 서로를, 또한 스스로를 돌보고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음식으로서 말이다.

조현병이 심해진 엄마가 더 이상 요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고등어 ‘세 개’와 ‘세 마리’라는 용어를 구분해 말할 줄 모르고, 썩과 썩갠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그레이스 조가 엄마를 대신해 한식 요리들을 만들어 주며 엄마를 돌본다. 엄마가 죽은 뒤에는 김치를 먹으면서 자신에게도 평생 먹여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엄마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기고, 엄마의 상

실을 애도한다. 전쟁 시절 가족들과 떨어진 엄마가 홀로 김치를 먹으며 살아남았듯, 그 역시 김치를 먹으며 엄마가 떠난 자리에서 살아남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 같은 맛』은 기지촌 디아스포라의 음식을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의미로 새롭게 전유하는 한편, 엄마의 행위성을 재조명한다.

#### 4. 창조적 재현: 요리와 글쓰기

상술한 『전쟁 같은 맛』이 보여 준 여러 시도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엄마의 한국전쟁 기억을 당사자를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레이스 조가 직면하고 있는 곤경이다. 1장에는 엄마가 죽기 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하듯, 그에게만 키친타월 속에 숨겨둔 진주 귀고리를 비밀스럽게 물려주는 장면이 제시된다(“네 거다, 잊지 말고.”[42]). 이제부터 시작될 엄마의 이야기를 직접 전승받은 존재, 따라서 그 이야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자신임을 시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긴 상징적인 일화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격이 그레이스 조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따져볼 만하다. 그는 엄마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거나, 엄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인물은 아니다. 일례로, 그는 오빠와 달리 기지촌에서 일했던 엄마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졸업 엄마가 있는 서헤일리스를 떠나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말년을 오빠의 뉴저지 집에서 기거하며 오빠 부부의 보살핌을 받았다. 엄마가 처음 자살을 시도했을 때 외국에 있던 그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고, 엄마의 부고도 오빠를 통해 전해 들었다. 물론 연구자로서 그는 오랜 시간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쟁 같은 맛』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엄마를



버리는 것을 주제로 삼는 반복적인 악몽이 잘 보여 주듯, 그는 늘 엄마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기도 했다.<sup>33</sup>

그와 같은 둘 사이의 간극을 봉합하기 위해 이 책에서 부각하는 요소가 엄마와 자신이 공유하는 인종적·젠더적 소수자성이다. 엄마의 삶의 모든 국면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지는 못한 불완전한 대리인으로서 그는 많은 부분을 자신의 상상을 통해 메워 나가는데(“엄마가 해준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나는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본다.”[70]), 이때 엄마에 대한 남다른 상상력과 감수성의 토대에 모녀가 공유하는 인종적, 젠더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은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책의 상당 분량을 할애하는, 서헤일리스에서 그가 보냈던 시간은 그곳이 고향인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아메라시안이지만 키가 190cm에 달하는 거구의 남성이었던 오빠, 그리고 미국 남부 아칸소주 출신인 올케와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서술된다. 동네와 학교에서 매일 같이 겪었던 인종 차별과 미세공격(microaggression), 한국계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양공주’의 딸에게 가해졌던 혐오와 뒷공론, 여기에 더해 학교에서 목인되었던 성폭력,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데이트 약물 강간, 그 모든 일들이 뒤엎혀 사춘기에 감행했던 자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그의 지난날들이 엄마가 한국과 미국, 가족과 직장 안팎에서 겪었을 일상적인 폭력과 거울상처럼 닮아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수자성이야말로 이 책에서 그가 여러 장벽과 간극을 뛰어넘어 엄마의 삶에 대해 대신 전달하고 서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이는 『전쟁 같은 맛』에 엄마의 이야기 못지않게 작가 자신에 관한 오토에스노그래피<sup>34</sup>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33 Grace M. Cho (2015), p. 61.

34 오토에스노그래피(autoethnography)는 제국주의 시대로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에스노그래피의 전통에 작동하는 식민주의 및 젠더, 인종, 계급 등의 권력 문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함께 탄생한 연구와 글쓰기 방법론이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에 존재하는

그런데 엄마와 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단적으로, 엄마와 달리 그의 아버지는 미국인 백인 남성이다. 또한 그는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들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뉴욕시립대학교의 정년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서 중학교를 겨우 마친 채 기지촌에서 일했고, 미국으로 이민 간 뒤에도 교도소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면서, 블루베리와 버섯 등을 채집해 팔았던 육체노동자였던 엄마와는 대조적이다.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엄마와 별인 언쟁 장면에서 드러나듯, 그는 엄마처럼 직접 전쟁을 겪거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 본 일이 없다. 물론 조현병에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전쟁 같은 맛』에서 그레이스 조는, 거칠게 말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해 온 엘리트 여성으로서 한국 노동계급 출신 여성의 전쟁, 성노동, 조현병에 대해 대신 말하는 상황, 다시 말해 주류의 위치에서 주류의 언어로써 소수자의 언어와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번역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에 따라 그의 시도는 책 안팎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엄마의 성노동에 관한 것이다. 책에 따르면, 그는 대학원에서 성상품화 문제에 관한 페미니즘 진영들의 논쟁사를 공부하고, 몇몇 성노동 활동가들과 만나게 되면서, ‘성노동은 개인의 선택이고 선택이어야만 한다’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성노동을 주장하는 성해방 급진주의의 견해에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의제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즉, 그곳에는 ‘선택’의 자유와 주체성을 역설하는

---

권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실의 억압과 왜곡에 대항하여 연구 대상이 되어 왔던 존재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리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최근 들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수적 장르로서 오토에스노그라피는 점점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추세다.

여성의 목소리는 있지만,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해 침묵을 감수해야 했던 여성의 목소리가 부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책에서 소개된, 성노동을 할 권리를 말하기에 앞서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의 확보가 더욱 시급한 문제임을 주장하는 필리핀 성노동 활동가의 목소리는 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문제는 엄마의 성노동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이른바 제1세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 입각해서 그로부터 억압과 강제가 아닌 주체적·저항적 의미—이를테면, “가부장제에서 기대되는 현모양처 역할에 ‘엿을 먹이려고’”(327) 등과 같은 서술—를 읽어 내려 할 때 부딪치는 곤경과 직결된다. 이는 이전 작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던 문제로, 실제로 그는 첫 책인 『한국계 디아스포라의 유령: 수치심, 비밀, 그리고 잊힌 전쟁』이 출간되고 자신의 책이 한국 기지촌 여성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를 했던 것처럼 기술하였다고 비판하는 이메일을 받았던 일화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쟁 같은 맛』의 지면을 빌려 그는 이 여성들의 성매매에 내재하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하려 했던 자신의 논의는 제국주의 질서 아래에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거나,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고 항변한다. 마찬가지로 전후 기지촌 여성들의 국제결혼과 이주로부터도 국가에 의한 추방과 배제를 넘어서는 주체적 행위성을 읽어 낼 수 있지만, 그 말이 이들이 피해자가 아님을 뜻하지는 않으며, 두 개의 명제는 결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강제 대 자유’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권력과 구조의 강제 속에서도 전적인 순응과 종속으로만 수렴되지 않는 주체의 행위성에 주목하고, 주체의 저항을 훨씬 더 다양하고 미시적인 층위에서 읽어내려 했던 그의 시도

는 그동안 기지춘 여성들이 담론화되어 온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부도덕한 선택에 화살을 돌리며 낙인을 찍거나, 반대로 연민 받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조명하면서 이들의 행위성을 무력화해 버리는 방식 양쪽과 거리를 두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 여기에는 제3세계 여성의 현실이나 목소리와 유리된 제1세계 주류 페미니즘 이론의 기계적인 이식과 재단을 경계하고, 그에 대해 성찰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쟁 같은 맛』에서 재조명되는 영역이 바로 엄마의 조현병이다. 이전 작업에서도 엄마의 정신질환 증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된 적 있지만, 조현병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이 책에서 그레이스 조는 조현병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서사를 전복하고자 시도한다. 하나는 조현병을 나쁜 유전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생물학적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질병이자 정신장애로 접근하는 ‘의료적 모델’이다. 그는 조현병을 사회적 질병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면서, 유색인종, 하층계급, 여성 등과 같은 소수 집단에서 조현병이 발병하게 된 사회적 원인을 강조한다. 또한 조현병자에 대한 치료라는 명목하에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이들의 행위성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해 온 현행 정신의학과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엄마의 조현병 증상 자체도 일종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 메시지로써 접근한다. 그에 따라 엄마가 듣는 목소리나,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읊어대는 식의 증상적 발화를 낫설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위한 서술 공간을 열어 둔다. 그 속에서 엄마가 듣는 목소리는 망가진 뇌의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조각난 역사의 흔적”(23)으로서, 엄마의 증상들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발화이자 저항으로서 재해석된다.

그 바탕에는 백인 남성 의사와 경찰,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 앞에서 엄마의 병에 대해 설명하면서 좌절감을 느꼈던 일화들에서 드러나듯, 엄마의

조현병은 서구, 근대, 이성, 남성, 아카데미즘의 언어로 번역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또한 진실을 말하는 여성의 언어가 광기로 치부되어 온 유구한 억압의 역사에 맞서, 조현병자 여성에 대한 이중의 굴레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투영되어 있다.

문제적인 부분은 이 과정에서 그가 엄마의 증상에 때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심지어 신비한 주술적 위상까지 덧씌우곤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엄마는 조현병 증상 속에서 지역 보건 예산을 축소한 레이건 정부의 본질을 꿰뚫고, 한국의 기지촌 출신 성노동자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미래에 있을 그들의 승리를 예지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조현병자에 대한 그동안의 왜곡된 표상을 부수기 위함이라지만, 엄마를 것처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페미니스트이자 소수자들과의 연대자, 나아가 선지자적 존재로 재현하는 과정에 엄마의 말, 침묵, 그리고 해석 불가능한 영역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그레이스 조의 과도한 욕망이 투사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듯, 페미니스트 연구자로서 그는 엄마의 성노동을 제1세계 백인 엘리트 여성 중심의 주류 페미니즘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민감하게 경계하였다. 즉,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자에 대해 대신 말하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성, 욕망과 한계를 의식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시도가 지닌 의미를 치밀하게 논증하였다. 그러나 엄마의 조현병 앞에서 그와 같은 자기성찰과 회의는 상대적으로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조현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변화시키려 했던 이 책이 오히려 그것을 낭만화, 신비화하는 혐의는 없는지 재고해 볼 만하다.

그레이스 조가 직면하고 있는 이 같은 재현의 곤경을 밀고 나가면, 과연 『전쟁 같은 맛』은 엄마를 얼마나 제대로 재현하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게다가, 책 바깥에서도 이 책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굿리즈(Goodreads) 같은 독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뜨거운 진실 공방까지 펼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레이스 조는 이 문

제에 대해 진실을 덮고 싶어 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려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sup>36</sup> 그러면서도 엄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래의 아버지의 성이 아닌, 외할머니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sup>37</sup>

이 대목에서 돌연 새로운 맥락이 부상하는데, 그레이스 M. 조는 사실 작가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필명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은 ‘나’라는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표지에 회고록(memoir)이라는 장르가 밝혀져 있는 만큼 독자는 일반적인 회고록 장르의 규약에 따라서, 이때의 ‘나’가 현실의 작가라고 간주하며 책을 읽는다. 그런데 실상 책 바깥의 작가는 본명이 밝혀져 있지 않은, 실체가 불분명한 존재인 것이다.

가족들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손 치더라도, 허구적인 필명에 의해 구축된 서사 공간 속에서는 지금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들이 모조리 뒤흔들리게 된다. 하균자는 엄마의 본명인가? 엄마의 한국 가족으로 제시되는 조성운, 하점을, 하춘자는 실존 인물인가? 올케는 엄마가 기지촌의 성노동자였다고 했다가 훗날 그 말을 번복하였다. 엄마는 정말 성노동자였는가? 어쩌면 이 회고록의 상당 부분은 픽션은 아닐까? 과연 엄마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이 논문은 그레이스 조의 『전쟁 같은 맛』이 궁극적으로 사실에 미달한 부정확한 재현이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논의할 문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그레이스 조의 요리 행위다. 엄마가 먹고 싶어 하는 기억 속의 음식을 재현하는 그의 행위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음식을 매개로 언어화되지 못했던 엄마의 기억과 접속하고, 가족사의 비밀의 문을 여는 작업으로 제시된

36 Dave Davies and Grace M. Cho (2021), “In *Tastes Like War*, a Daughter Reckons with Her Mother’s Schizophrenia” (Author Interviews), NPR, December 14.

37 박돈규(2023), 「엄마는 양공주였지만 부끄럽지 않아…나한테는 영웅이니까」(인터뷰), 『조선일보』, 8.12.

다. 그 점에서 그에게 요리는 글쓰기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때 『전쟁 같은 맛』에서 요리가 흥미로운 점은 원본과 재현의 관계가 매우 불분명한 영역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3장에서 논한 엄마의 요리로부터 발생하는 패러디적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로지 엄마의 기억 속의 레시피에 의존해 만들어 준 생태찌개는 과연 얼마나 원본에 충실한 재현이었을까? 만약 40년 전 엄마에게 이 음식을 처음 만들어 주었던 외할머니가 맛보았다면 그는 내가 재현한 맛에 동의했을까? 아니, 애초에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였던 외할머니는 얼마나 정통 그대로의 생태찌개를 만들었을까?

이는 국경을 넘는 한국 음식의 여정을 탐구하면서, 소나 량이 지적한 정통성(authenticity) 개념을 해체하는 요리의 근본적인 재현적 속성을 상기시킨다. 그에 따르면, 요리에서 원본, 원조를 둘러싼 정통성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논쟁의 영역이지만, 실상 원조를 내세우는 온갖 레시피, 레스토랑, 슈퍼마켓 식품 라벨 등이 만약 이들의 주장과 같이 모두 원본이라면, 매번 원본이 재현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매번 다시 만들어지고 재현될 수 있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원본이라고 할 수 없다. 소나 량은 이처럼 정통성의 의미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 애초에 자연(원본)에서 취한 식재료들을 기술과 노력을 투입해 인공적인 예술로 창조하는 요리는 모두 일부의 재현이라고 역설한다.<sup>38</sup> 정통성 개념에 꼭 들어맞는 요리는 애초부터 없으며, 정통성 개념이야말로 가상적·허구적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책에 등장하는 요리에서도 정통성 개념을 해체하는 창조적 재현으로서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간 여성들이 만든 빵 꾀다리와 칠리 플레이크를 섞어 만든 고추장이라든지, 나와 캐비지를 구해다 아시안 슈퍼에서 사 온 고춧가루와 액젓

38 Sonia Ryang (2015), *Eating Korean in America: Gastronomic Ethnography of Authenticity (Food in Asia and Pacific)*,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14-115.

으로 담근 엄마의 김치처럼 말이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진짜’ 생태찌개든 아니든, ‘정통’ 한국 김치든 아니든, 이 책에서는 엄마의 과거로 향하는 기억의 문을 열어 주고, 나와 입양아들과 이주여성들을 위로해 주는 음식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원본에 충실하고 정통한 재현만이 제대로 된 재현이고, 의미 있다는 생각과 정면으로 맞서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급했듯, 엄마는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오랫동안 복원되고 재현되지 못한 존재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가족들이 엄마의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출판되는 것을 막았다면, 한국에 엄마의 유골을 안치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한국 정부와 친족에 의해 모두 거부당했다. 한국으로 이장 허가를 받기 위해 뉴욕 주재 한국 영사관에 방문했을 때 그는 오직 한국인의 유해만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미국인 남편의 성을 사용하고, 일본에서 태어난 엄마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는다.<sup>39</sup> 가까스로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한국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창녕의 친족들이 애매한 이유를 내세우며 엄마의 유골을 그곳에 안치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결국 “엄마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던 부산의 삼광사에서 단 한 명의 친족 없이 치른 장례에서 드러나듯,<sup>40</sup> 한국에서 엄마는 여전히 유골의 귀환조차 거부당한 유령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엄마에 대한 침묵의 금기를 깬 죄로 그레이스 조 역시 미국과 한국의 가족들 사이에서 또 한 명의 사라진, 이름 없는 유령이 되었다.<sup>41</sup>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엄마의 ‘진실’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일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책이 얼마나 ‘진실’에 가깝고 정통한 재현인지를 논하기보다 그레이스 조가 엄마를 위해 만든 요리처럼 『전쟁 같은 맛』을 통해 그가 일종의 창조적 재현으로서 엄마의 한국전쟁 기억을 가시화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다양한 글쓰기 전략, 즉 요리로

39 Grace M. Cho (2021), “Dear imo,”

40 Grace M. Cho (2015), pp. 63-65.

41 Grace M. Cho (2022), p. 244.



비유하자면 레시피 쪽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 『전쟁 같은 맛』에 이르는 그동안의 작업들에서 나타나는 그레이스 조의 주된 문제의식 및 형식적 실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일반적인 회고록 장르와 달리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와 양식을 넘나드는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엄마의 유령적 속성을 가시화하고 엄마를 유령으로 만든 권력에 대항하고자 했던 이 책의 글쓰기 형식상의 특성을 ‘유령 되기’의 재현 전략으로 논했다.

다음으로, 엄마를 구조적 폭력에 의한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행위성을 발휘하는 주체로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새롭게 주목한 음식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선 장이 엄마의 트라우마의 재현에 관한 논의라면, 이 장에서는 엄마의 행위성을 어떻게 재현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지촌 디아스포라로서 엄마가 만든 음식 및 요리하기 행위로부터 동화와 반란의 양가적 수행성 및 민족주의 젠더 담론에 대한 패러디적 측면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재현의 시도와 성과의 다른 한편에서 이 책에서 그레이스 조가 직면하고 있는 엄마의 한국전쟁 기억을 당사자를 대신해 말하는 과정의 곤경에 대해 논했다. 이때 주류의 위치에서 주류의 언어로써 소수자의 언어와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번역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간극 및 해석 불가능한 영역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작가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와 동시에 엄마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복원되지 못한 유령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실, 원본, 정통성 개념을 넘어서는 창조적 재현으로서 이 책에서 시도한 요리와 글쓰기의 의미를 재평가했다.

## 참고문헌

### 자료

- Cho, Grace M. (2022), "Divisions," *Amerasia Journal* 47(2),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 Cho, Grace M. (2021), "Dear Imo: A Letter from the Korean Diaspora," *Catapult*, 23<sup>th</sup> June.
- Cho, Grace M. (2021), *Tastes Like War: A Memoir*, New York: The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그레이스 조(2023), 주혜연 역, 『전쟁 같은 맛』, 파주: 글항아리].
- Cho, Grace M. (2015), "Samgwangsa: A Travelogue of Kinship," *Qualitative Inquiry* 21 (1), Sage Publications.
- Cho, Grace M. (2014), "Eating Military Base Stew," *Context* 13(3),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Cho, Grace M. (2008),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ho, Grace M. (2006), "Diaspora of Camptown: The Forgotten War's Monstrous Family," *Women's Studies Quarterly* 34(1&2), The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Cho, Grace M. (2006), "Homecoming," *Feminist Studies* 32 (2), Feminist Studies Inc.
- Cho, Grace M. (2006), "Performing an Ethics of Entanglement in *Still Present Pasts*: Korean Americans and the 'Forgotten War'," *Women & Performance: A Journal of Feminist Theory* 16(2), Taylor & Francis.
- Cho, Grace M. and Hosu Kim (2005), "Dreaming in Tongues," *Qualitative Inquiry* 11 (3), Sage Publications.
- Cho, Grace M. (2005), "Regression Analysis: Mother, Memory, Data,"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5(1), Sage Publications.
- Cho, Grace M. (2004), "Murmurs in the Story-Telling Machine,"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4(4), Sage Publications.

### 논저

- 김윤식(1988),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 김현희(2021), 「이민 후 세대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 쓰기: 전쟁, 트라우마, 기억하기의 초국적 서사」, 정은주 편, 『글로벌 시대 재미한인 연구』, 고양: 학고방.
- 장영은(2022), 「트라우마와 공부: 그레이스 조의 자기서사와 모녀서사」, 『여성문학연구』 57, 한국여성문학회.

- Braidotti, Rosi (2002), *Metamorphoses: Towards a Materialist Theory of Becoming*, Cambridge: Polity. [로지 브라이도티(2020),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꾸문고]
- Mannur, Anita (2007), "Culinary Nostalgia: Authenticity, Nationalism, and Diaspora," *Multi-Ethnic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3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Hong, Cathy (2020),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London: One World. [케시 박 홍,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 Ryang, Sonia (2015), *Eating Korean in America: Gastronomic Ethnography of Authenticity (Food in Asia and Pacific)*,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Yuh, Ji-Yeon (2004),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여지연, 임옥희 역,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 You, Sunhay (2022), "Tastes Like War by Grace M. Cho" (review),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5(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인터넷 자료

- 박돈규, 그레이스 M. 조 (2023), 「엄마는 양공주였지만 부끄럽지 않아... 나한테는 영웅이니까」, 『조선일보』, 8.12.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8/12/KUZTKH26INAQLCXVMC4UWAK5A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8/12/KUZTKH26INAQLCXVMC4UWAK5A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Cho, Grace M., Jennifer Kwon Dobbs, and Daniel Y. Kim (2021), "A Forgotten Apocalypse," *Bookforum*, 28<sup>th</sup> June. <https://www.bookforum.com/culture/grace-m-cho-jennifer-kwon-dobbs-and-daniel-y-kim-on-the-legacy-of-the-korean-war-24541>
- Nam, Hiji and Grace M. Cho (2021), "Words Unspoken: Grace M. Cho on Anti-Asian Violence, Mental Health, and the Livingness of Trauma," *Artforum*, 25<sup>th</sup> May. <https://www.artforum.com/interviews/grace-m-cho-on-anti-asian-violence-mental-illness-and-the-livingness-of-trauma-85778>
- Nam, Hiji and Grace M. Cho (2018), "Yellow Fever," *The New Inquiry*, 14<sup>th</sup> March. <https://thenewinquiry.com/yellow-fever>.
- Shin, Sarah and Grace M. Cho (2021), "In Conversation," *Granta*, 28<sup>th</sup> September. <https://granta.com/in-conversation-cho-shin>.
- Nguyen, Viet Thanh (2015), "Our Vietnam War Never Ended," *The New York Times*, 24<sup>th</sup> April. <https://www.nytimes.com/2015/04/26/opinion/sunday/our-vietnam-war-never-ended.html>.

## ABSTRACT

# Recipes for Ghosts

Na, Boryeong\*

Korean American Memory and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War through  
Grace M. Cho's *Tastes Like War*

This paper examines Grace M. Cho's *Tastes Like War* in the context of Korean American memory and its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War. Here, memory of the Korean War is understood as an expa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not only the war itself, but also a range of post-Korean War experiences that Cho's mother is portrayed as having undergone. These experiences include engaging in sex work in the post-war camptowns, international marriage and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schizophrenia, and the ongoing situation of division revealed by her mother's remains, which never returned to Korea after her death.

In order to accomplish this exploration, the paper first examines Cho's key concerns and formal experiments in the works leading up to *Tastes Like War*. Following this analysis, it discusses the book's formal attributes as a strategic approach to representing the concept of 'becoming ghost' through hybrid memoir writing. This method aims to make her mother's ghostly attributes visible through the use of multiple subject voices and forms,

---

\*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Liberal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by challenging the forces that turned her mother into a ghost.

The paper then examines the book's renewe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food in the process of reconsidering the mother as an agent of agency, moving beyond the representation of her solely as a victim of structural violence. Related to this theme is the ambivalent performativity of assimilation and rebellion, as well as the parodic aspect of nationalist gender discourses evident in the food and cooking practices of Cho's mother as a camptown diaspora.

Finally,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efforts and achievements in representation, the paper examines the predicament Cho faces in speaking on behalf of her mother's Korean War memories. It critically analyses the author's tendency to over-interpret the gaps and uninterpretable areas that result from translating the language of the minority and the unspoken into the language of the mainstream from a position of dominance. At the same time, the paper emphasises that Cho's mother remains a ghost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day. This leads to a re-evalu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book's attempts at cooking and writing as a creative recreation that transcends conventional notions of fact, originality, and authenticity.

**Keywords** The Korean War, Diaspora, Korean American, Amerasian, Camptown, Schizophrenia, Food, "Soup and Ideology"

